
2020년 제16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4. 10. ~ 4. 16.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4. 10.	시청률	0.071

【총 평】

<여러분의 북마크>는 58회에서 64회에까지 코로나19에 관한 북한 상황을 연속 집중진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한반도 정세 변화, 남북보건협력 실효성, 북한경제 4월 고비설과 해결방안,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 시청자 관심을 높인 점이 돋보였다.

제64회는 코로나19특집 '북한 국가존망 걸린 코로나19 차단전'을 주제로 북한의 경제난 실상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신제품에 활용하기 위해 불가사리 효능을 연구하며 고군분투하는 북한의 모습이 소개돼 북한 실상을 엿볼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4월 고비설을 맞은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의 고립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 같은 평화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솔루션을 제시한 분석도 설득력을 제고했다. 평화의 메시지를 북한 경제난 해법으로 제시한 점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넘어서 평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여론형성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정책방송으로서의 정체성 제고에 기여한 점이 탁월했다.

【구성 및 내용】

제64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와 중국과의 교역중단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의 상황을 깊이감 있게 조명했다. 단박톡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 장기화와 이로 인해 변화하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 경제난 해법, 코로나19 진단장비, 사재기 등을 두루 다뤘다. 북마크TV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북한이 개발하는 소독제, 고려약 등을 소개했다.

<단박톡>은 전문가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진단키트와 마스크 부족, 옥류관 방역, 최근 장마당 풍경, 사재기 대란, 자력갱생 강조 속사정, 비료공장 건설 이유 등 북한의 속사정을 깊이있게 다뤄 관심을 증폭시켰다. 한계 상황에 빠진 북한의 상황을 중국과의 교역 중단, 차단된 외화벌이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했고, 자력갱생이라는 구호가 의미하는 바를 전후 사정을 따져 알기 쉽게 전했다. 특히, 자력갱생을 홍보하는 영상을 여러 편 보여줬는데 어떤 설명 없이도 그 자체로 북한의 절박함을 잘 느낄 수 있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력갱생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요즘 시대에 특히 외부에서 도와줄 수 없는 북한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경제는 자본, 기술, 노동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북한의 경우에도 마중물이 필요하다. 노동은 풍부하지만 UN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자본, 기술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마크TV>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누공장의 스프레이 소독제품 생산현장과 면역증가를 위한 고려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현장을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 퇴치 연구의 일환으로 면역력 증대를 위한 삼바리, 즉 불가사리의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하기도 한다.

프로그램	KTV 아트시네마		
방송일자	2020. 4. 11.	시청률	0.023

【총 평】

KTV 편성개방 프로그램 <아트시네마>는 한국 영화 발전과 차세대 영화인을 위해 마련된 콘텐츠임을 여실히 증명한 방송이었다. 특히, 다양한 장르를 다루면서도 작품의 밀도나 품질이 매우 높았고, 작품을 선정의 수고가 돋보인 방송이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연출과 구성 및 내용이 안정적이고, 작품 선정도 균형을 이뤄 프로그램 흥미도나 완성도, 정체성 부분이 매우 높은 방송이었다.

독립예술영화 4편이 소개 되었는데, 각각 우리 생활상과 밀착된 주제를 가지고 관객에게 깨달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영화들이었다. 특히, '막다른 골목의 추억'은 가수 수영과 일본인 남자 배우가 상대역을 맡아 나고야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방황과 이별과 상처 받은 외로움을 화면 가득히 담았다.

【구성 및 내용】

<아트시네마>는 제5회 방송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연출과 구성 및 내용이 안정적이고, 작품 선정도 균형을 이뤄 프로그램 흥미도나 완성도, 정체성이 매우 높았다.

■ Today 다양성 영화 → 영화 '풍진'

산업재해 현장의 공장 노동자의 삶을 그린 영화 '풍진'을 통해 산재 근로자들의 모습을 소개했다. 회색 연기와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공장 지대의 마을, 연기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불안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 시네마 토크(Talk) → 최현영 감독

일본 요시모토 바나나의 원작을 영화화 한 '막다른 골목의 추억'을 제작한 최현영 감독과 영화 뒷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별을 맞게 된 여주인공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감독은 누구나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 허우적거리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서서히 상처가 치유되고, 언젠가는 그 상처받고 아팠던 그날이 그리워 질 날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 캐릭터 탐구 → 영화 '안녕 히어로'

영화 '안녕 히어로'속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분석했다. 해고 노동자 아빠를 통해 인생을 배우는 아들 현우의 관점에서 영화를 풀어나갔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복직 문제가 그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들 현우의 눈을 통해 삶의 무게를 그려낸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히어로'를 소개했다.

■ 영화읽기 → 영화 '출사'

유재현 감독의 코멘터리로 판자촌의 미스터리를 그린 '출사'를 소개하였다. 찍히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찍고 찍히는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영화였다.

프로그램	귀농 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4. 12.	시청률	0.273

【총 평】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제28회 방송은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해 만끽할 수 없었던 봄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아낸 '꽃길을 걷는 화훼 가족'으로 3대가 꽃과 동행중인 귀농 5년차 가족을 소개하였다. 주인공은 귀농 5년차로 전국 화훼생산 주산지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덴마크 무궁화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친정 아버지의 일을 딸이 물려받으면서 사위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일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부분보다 같이 일해서 좋은 부분을 잘 부각시켰다.

특히, 3대가 보여 준 꽃을 향한 애정이 프로그램에 가득했고, 화훼농사의 힘들이 꽃과 가족 사랑으로 치유됨을 보여준 방송이었다. 또한, 중국 유학 경험을 활용한 주인공의 전문성과 화훼농사를 향한 남편과 친정 부모님의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난 구성이었다.

【구성 및 내용】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꽃길을 걷는 화훼 가족' 전반부는 중국 유학까지 다녀온 딸이 사위와 함께 귀농을 하게 된 사연을 중심으로 소개됐다. 주력 상품으로 소개한 '덴마크 무궁화'도 생소한 꽃이라 신기했고 전반적으로 화훼 농가의 생소한 작업들이 초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아침부터 오후 출하와 경매 작업까지 전 과정이 소개되어 이해를 도왔고 그 중간에 가족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내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렇지만 딸 부부는 아직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딸은 시종일관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더 유쾌하게 그려졌다.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의 입장도 빼놓지 않고 다루었는데 역시 고충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딸 부부와 부모님 내외의 모습을 교차해서 편집해 비교가 되기도 했는데 서로 아껴주고 신뢰하는 모습이 꼭 닮아 있어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어머니에게 수시로 애정 표현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편집하지 않고 다 살려서 가족애의 근본을 간접적으로 잘 표현해낸 것 같다.

후반부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많이 입기는 했지만 최근에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도매 농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이 보여 나아진 사정을 알 수 있었다. 또, 남동생이 등장하면서 가족애가 더욱 부각되었다.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농사를 대를 이어 짓고 있는 자식들의 포부와 자랑스러움이 한껏 묻어났고 딸이 시댁 어른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정겨운 모습을 극대화했다.

전체적으로 아침 물주기 작업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이 소개됐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다른 지역에서 화훼 농사를 짓고 있는 동생까지 합류해서 대가족의 정겨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부부는 마무리에서 동일하게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강조해서 끝까지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

프로그램	웹툰다큐 멋진 공무원		
방송일자	2020. 4. 12.	시청률	0.056

【총 평】

<웹툰다큐 멋진 공무원>은 1회부터 7회까지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위민봉사 정신과 공무원의 자긍심을 부각시키는 기획이 탁월했다. 제7회는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산림청 산림항공본부 1부>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5분 이내 헬기로 긴급출동해 산불을 진화하는 실제상황을 보여줘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상을 집중 부각했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봄철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맞춘 시의 성과 함께 적시 산불조심 캠페인 효과도 기대된다. 공무원의 사명감 부각과 함께 산불 진화에 대한 정책알림이 역할역할도 수행해 정책방송 KTV의 정체성 제고에 기여했다.

【구성 및 내용】

산불 발생 시 최전선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이 바로 산림청의 산림항공본부로 하늘엔 진화헬기, 땅에서는 공중진화대가 활동하고 있었다. 산불현장으로 헬기 긴급 출동, 공중 충돌을 막기 위해 지휘에 나선 공중 지휘기, 수면위 초근접 담수 성공, 산불 현장에 물 투하, 산불 진화 장면, 강풍에 번지는 산불을 공중에서 내려다 보는 영상 등 전체적인 상황 흐름이 한 눈에 들어와 긴박감과 함께 임장감이 살아났다. 특히, 산불현장의 급박한 모습과 이들의 활약상이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달되었고, 산불진화대원들은 겨울철, 봄철에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인명구조부터 항공방제작업, 산림사업 지원 등 다양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어 방송취지를 잘 살렸다.

■ 산림항공본부 헬기

산불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므로 항상 측수점검 등 헬기 점검이 필수이다. 헬기는 단순히 산불진화뿐만 아니라 인명구조도 하고 산에 병해충 발생 시 항공 방제 작업도 하며 등산로 정비 같은 산림사업 지원 시 등산로 정비 자재를 실어나르는 일 등 다양한 현장에 투입된다.

■ 안동 산불 현장

안동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여 본부에서도 헬기의 출동 지원이 이뤄졌다. 급박한 현장에서 여러대의 진화헬기가 방어하며 진화작업을 펼쳤다. 산림청 헬기 6대 등 10대의 헬기가 출동하다보니 충돌 위험도 있고, 가장 위험한 작업인 담수작업의 경우 물 위에서 초 근접 비행을 하며 물을 확보한다. 이렇게 좁은 공역에서 작업하는 많은 헬기들의 지휘 및 관리를 위한 공중지휘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 공중진화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다. 공중진화팀은 산불 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헬기레펠 훈련 등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훈련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KTV 온라인 세상		
방송일자	2020. 4. 13.	시청률	0.080

【총 평】

<KTV 온라인세상>은 정책방송의 정체성을 높여온 KTV의 대표적인 콘텐츠를 모아 매거진 형태로 보여주는 포맷으로 주목도를 높였다. 국민방송의 콘텐츠 가운데 한 번 보고 넘기기엔 아까운 콘텐츠도 있다. 이런 콘텐츠를 매거진 형태로 다시 보여주는 콘셉트가 시청자 유익성면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 관련 생활법률을 요약한 <밥보다 법>, 인명을 구조하는 북한산 119구조대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완벽하게 완수해내는 ‘멋썸’ 모습을 요약해 보여준 <웹툰다큐 멋썸 공무원>, 사라져가는 소리를 따라 떠나는 여행시리즈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등이 감동을 선사했다. 또, 젊은 패티김의 노래 ‘태양이 뜨거울 때’를 흑백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행운도 <KTV온라인세상>의 고객 서비스였다.

【구성 및 내용】

<KTV 온라인세상>은 ‘밥보다 법’에서 3월 7일 방송된 부동산 법률, ‘웹툰다큐 멋썸 공무원’의 3월 1일 방송된 북한산 119 산악구조대,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의 3월 28일 방송된 섬진강 물길따라에 대한 내용이 요약 구성되었다.

■ 밥보다 법

일상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을 시청자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임을 적절히 설명했다. 이번에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여 부동산 법률을 소개했다. 매도인이 잔금 받기를 거부하는 재연드라마를 비롯하여 SNS 라이브 댓글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딱딱한 법률 소재를 탈피해 정보에 예능 요소를 가미한 인포테인먼트 포맷이 시청자의 시선을 끌었다.

■ 웹툰다큐 멋썸 공무원

공무원의 세계를 소개 밀도 있게 소개하고 시청자들이 미처 몰랐던 공무원의 애환과 업무환경을 자세히 조명하고자 한 취지를 잘 전달했다. 인명을 구조하는 북한산 119구조대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완벽하게 완수해내는 ‘멋썸’ 모습을 요약해 보여줘 공무원 이미지를 제고했다. 또, 북한산 등산객의 조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출동 현장을 동행 취재했으며, 봄철 등산 주의점, 조난시 구조 과정, 도움 요청 요령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자연과 어우러진 우리네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볼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의 특징을 적절히 소개했다. 섬진강 물소리와 목련꽃봉오리 채취 사운드, 목련꽃차 따르는 소리, 봄이 오는 섬진강 시 낭송은 코로나19의 시련 속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의 정취를 음향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4. 13.	시청률	0.014

【총 평】

<국민리포트>는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프로그램 기획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따른 화훼농가 응원, 미더덕 '드라이브 스루', 활짝 핀 '복수초' 등 시청자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는 자연의 섭리 등 타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차별화된 소재로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의 생활밀착형 뉴스를 전하면서도 에너지와 생명 그리고 존엄성과 희망을 담아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경기도 고양시 화훼농가 자구책 찾기를 비롯해 경남 창원시 미더덕 어민 돕기,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산국립공원의 봄꽃 정취, 4월의 사서추천도서 등을 소개했다.

【구성 및 내용】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특산품을 온라인 및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의 지역 경제 순환을 하는 것으로 경기 침체를 막고, 비대면 접촉의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활성화해 경기 침체 쇼크를 줄여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반응도 적극 전하면서, 동참과 관심을 유도했다.

- 고양 꽃 박람회 연기...꽃 소비 운동으로 화훼 농민 응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된 고양시 꽃 박람회 소식을 전하고, 봄꽃 특수를 놓친 화훼농가의 안타까움을 취재하였다. 가을로 연기된 봄꽃 축제로 인해 화훼농가 어려움, 화훼농가 소비 활성화 운동을 취재하였다.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화훼농가의 시름을 달랜 '아이디어 판로 개척 사례'는 훈훈함을 자아낸 캠페인성 정보 뉴스였다.
- 미더덕 '드라이브 스루'...어민 시름 덜어
창원시에서는 어민들을 돕기 위해 수산물 세트 및 미더덕 등 제철을 맞은 수산물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판매에 나서 신선한 활기를 일으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수산물을 사고 직원들이 트렁크에 실어주는 방식으로 물건을 사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용기로 극복하면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응원하는 소식이었다.
- 활짝 핀 '복수초' 감상하며 코로나19 잊어요
국립공원 무등산의 복수초 군락지 현장을 소개했다. 벚꽃·개나리·진달래와는 희소성 있는 야생화라, 시청자들 시선을 잡아끄는 효과가 있었다.
- 4월의 사서추천도서...길어지는 '집콕' 독서로 이겨요
국립중앙도서관은 독서의 시간을 갖게 하는 4월의 사서 추천 도서로 '성공의 음악가들', '엄마의 죽음은 처음이니까', '우리 몸 안내서', '르몽드 비판경제학' 등을 권했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4. 14.	시청률	0.102

【총 평】

<KTV 대한뉴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일상과 전 세계의 상황이 달라진 지금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대책, 생활방역의 필수화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달했다. 특히, 우리정부의 코로나19의 대처 및 방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등을 전했다. 또, 확진자 숫자도 크게 줄었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단계를 강화하고 비협조적일 경우에 엄정 대응을 예고하였다.

특히, '가상대담'에서 '수출 제고·내수 보완 대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재구성하여 스튜디오 분할화면 토크로 진행하였는데 아이디어가 좋았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에서는 '21대 총선 D-1'을 주제로 감춰둔 국민의 마음을 맘껏 표현 하라는 캠페인성 논평이었다.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라는 당부는 매우 의미 있는 마무리였다.

【구성 및 내용】

■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 “경제·인적 교류 유지해야”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핵심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이해를 도왔고 채택된 정상선언문의 세부 내용도 요약이 잘 되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의 반응으로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었다.

■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일 먼저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와 '긴급재난지원금'이 바로 지급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코로나19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며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비대면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긴급재난 지원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됐던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국토부와 법무부가 공동 담당하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됐다.

■ 코로나19 혈장치료제 2~3개월 내 개발

정부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을 활용한 혈장 치료제를 2, 3개월 안에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환자에게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투여해 효과를 본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 백신은 국제협력과 민관 공동연구를 통해 내년 하반기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한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4. 14.	시청률	0.075

【총 평】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둔화되면서 이제 관심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동향으로 쏠리고 있다. 이미 생산 소비 투자 등 트리플 악재에다 수출 감소, 실업자 증가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톡톡 사이다경제>는 제239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촘촘하게 진단하면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기획이 돋보였다. ‘세계 코로나19 대응, 불확실성 극복과 경제회복 전망’을 다룸으로써 미국, 유럽, 일본의 코로나 현황과 대응을 점검한 뒤 경제 전망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구성 및 내용】

최근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일본, 북한의 코로나19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며 과연 정점을 지났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전망과 함께 향후 회복양상, 그리고 미중무역분쟁의 방향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특히, 주요국의 코로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한 뒤 경제 전망을 분석하는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주요 국가들이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염병이 확산 형태를 보여 글로벌 체인망이 더더욱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세계상품교역 비중이 41.3%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주요국 교류축소에 의해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 점도 우려감을 높였다. 또, 주요국가와 공조와 교류가 과거에 비해 강조되었기 때문에 과거 전염병에 의한 팬더믹에 비추어 봤을 때 V자 반등보다 L자형 반등을 예상했다.

다수의 국가에서 정점을 지났다는 진단과 함께 여전히 감염병 확산이 진행되는 곳도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초기 코로나19 대응이 실패했고 아쉽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의료체계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났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 가동 소식과 백신 개발에 정부에서 2천 백억원을 지원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이 전해졌다. 빌 게이츠가 제안한 마스크와 진단 키트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백신개발에 필요한 R&D투자, 백신 개발에 치밀한 계획 방안이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미국의 코로나19 현황과 대응방안, 유럽 각국의 코로나19의 현황 및 비상사태 봉쇄를 완화하려는 스페인의 움직임 등을 자세히 살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의료시스템이 코로나19 진단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 실태를 설명했다.

북한이 코로나19 현황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절박한 경제 상황을 인정하고 목표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것을 장기간의 국경봉쇄와 경제제재로 인해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 의미있는 내용이었다.